

정복자 고린도후서 4:1-10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완전한 정복자였다. 어제 237 훈련이 절대 인생이었다. 절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내가 상관해서 흔들리지 하나님은 상관없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복한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문제 가진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우리 모든 현장에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다. 예배나 기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야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에서 해방을 약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가 없다. 그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와 권세를 또한 약속하셨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까지 가야 할 것이다. 능히 갈수 있고 쉽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 먼저 너의 인생의 재앙을 막으라는 것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다. 이 언약을 잡아라, 약속의 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너를 너의 재앙에서 건지려고 죽은 것이다. 이것을 믿고 언약으로 잡고 이것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냥 약속대로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너의 이것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너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의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바로 정복이다. 답이 되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이미 찾아 놓은 답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한번 나에게 언약이 되는 예배 되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축복을 주신다. 단 하루만에는 안된다. 지속하는 자는 분명히 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오늘도 더 깊이 들어가는 오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

1. 정복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남은 자는 언약을 정복하는 인생을 산다. 그제 순례자의 인생이다. 언약을 잡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순례자이다. 이런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복한다. 세상과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끔 해주신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의 인생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개인 인생 정복한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재앙의 머리를 깬다. 그래서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이다. 뱀을 약속했느냐면 뱀의 머리를 깬다. 너의 재앙의 머리를 깬다. 이 약속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이다. 믿으면 잡을 것이다. 안 잡히는 사람은 생각해보라. 내가 안 믿고 있기 때

문이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잡아지지 않는다는. 그러나 아는 것 중요하다. 모르는 것과는 천지차이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잡고 누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것이 끝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례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러므로 이 소원과 통하는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을까? 미국 교회에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남미의 흐름을 바꿀수 있을까?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을 뒤집음으로 남미의 문화를 바꿀수 있을까? 미국의 죽어가는 문화를 바꿀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니가 거기서 답을 얻고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잡아라.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다. 니가 개인적으로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붙여줄 것이다.

모세는 잘 아는대로 창세기를 기록한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 시대의 소원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호렙산에서 받았다. 당대를 모세를 이길 사람은 없었다. 모래 땅도 못 이겼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누가 모세를 이길 것인가? 노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언약을 가진 유일한 사람, 결국 노아는 온 땅에 주인이 되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인생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미국을 살리고 남미 끝까지. 우리도 작품을 남기고 대를 이어 계속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남미의 곳곳에 문을 열 것이다. 미국 교회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라담당 주 담당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소원을 미국과 남미에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남미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니가 이것을 잡아라. 내가 재앙을 막는다. 가장 먼저 니가 이것을 잡아라. 너의 개인 인생의 재앙도 막을 것이고 가문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답이 난 사람이다. 많은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은 핍박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답이 나고 승리하고 정복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 증거를 써 놨다. 8절을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옥여쌘를 당했다. 그러나 쌓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옥여쌘했다고 했을 것이다. 바울은 아니다. 이미 마음에 답이 나 있었다. 답 난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이 나면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세상에 아무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답이 나 버렸다. 어떤 핍박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에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이 무너짐이 없는 사람은 절대 육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보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한다. 당연히 하나님도 영이고 영으로 이기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도 안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다. 사도바울은 이미 모든 것에 답이 나 있었다. 언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자유를, 이렇게 답난자의 자유를 누가 꺾겠는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에 절대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다 알고 있다. 렘넌트 7명은 미리 답이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분석을 해버린다. 그 눈이 있는 것이다. 답이 있으니까. 이유도 알고 어떻게 될 줄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이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울지도 않았다. 감옥에 가도 억울하다는 소리 안했다. 답 나 버렸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답 났는가? 그리스도에 답 났다.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 믿을 뿐 아니라 따라야 한다. 믿기

전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은 다르다. 믿기 전에 아는 것은 알고만 있고 믿지 않는 것이다. 믿고 난 뒤에도 알아야 한다.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내것이 된다. 그래야 진짜 약속대로 육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이 여기에 답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림의 결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겠는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더 위로하시고 더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꺼꾸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힘으로 꺼꾸러 뜨릴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는 것이다. 오히려 더 정확한 제자가 붙고 더 큰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답 난 자이다. 이것이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하는 자의 권세요, 인생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다. 되고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나 더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누리면 니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 인생을 더 의미있게 하고 더 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팩터이다. 근본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언약이고, 237, 오천종족이다. 우리도 살아가다보면 사도바울처럼 육여쌘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복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이었다. 먼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러면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말인가? 답이 딱 나고 마음에 확인이 된 후부터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한칸 높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육간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진정한 남은자가 되었다. 진정한 남은자가 진정한 순례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완전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모세는 완전 정복안했겠는가? 완전 정복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하나님이 주신 비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도 바울처럼 승리와 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사회의 정치, 제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꾼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버렸다. 사회 안의 모든 제도와 문화가 바뀌었다. 그리하여 수 많은 사람을 살렸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질문이다.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써 놓은 것이 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고 하였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 하고 하였다. 그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그 약속의 피를 짊어지는 것이다. 저주의 머리를 깨고 뱀의 머리를 깬, 그의 보혈의 언약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많은 희생과 사랑과 고통을 함께 짊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이다. 이것이 짊어진다는 뜻이다. 이 놀라운 희생의 삶 속에서 깊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이 삶을 항상 한다고 하였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하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에게 나타난 역사를 오늘 쓴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언약에 답이 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육여쌘을 당

하겠는가? 이 언약에 답을 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싸이겠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핍박을 받아도, 왜 버림받은 마음이 들겠는가? 언약이 있는데? 사람이 그를 거꾸러 뜨린다고 망해겠는가? 언약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개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을 말할 사람은 절대로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절대 안 망하는 것, 약속의 피를 잡는 것이다. 틀림이 없는 것이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답이고 뱀의 머리를 깬 것이고, 너의 저주, 재앙을 깬 것이다. 지난 주일에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 깨듯이 깬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 원수도 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원수가 있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맥없는 사랑이 아니다. 조건이 하나있다. 한 개다. 주 예수, 나의 아들을 구원자로 받아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였다. 이것이 조건이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인생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승리하고 정복한다. 요셉등 렘넌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때로는 우리도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또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괜찮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답이 난 사람이 사람이 싨다고 해서 육여쌘을 당하는가? 언약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절대 안 망한다. 중요한 증인들이 가득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답이다.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때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의 고통과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나도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겠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과 문을 열어주시라고 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의 죽으심 너무나 귀하다.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아난다. 죽었는데도 살아나버린다. 인생도 죽지 않는다. 지지만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것이다. 입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 평생을 두고 절대 입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당연히 열매가 나온다. 이런 언약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자가 어떻게 낙심을 하겠는가? 어떻게 사람에게 의해서 거꾸러 뜨림을 당하고 육여싼다고 꿈쩍못 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복음으로 답 나기 바란다. 언약을 딱 잡아라. 계속 고백하는 중에 계속 속으로 각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은 어떤 저주에서도 해방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뱀의 머리는 반드시 박살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넘어져도 뱀은 이길 수 없다.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이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무너진 그것도 박살난다. 우리의 권세는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땅 끝이다. 예수님의 소유가 땅 끝이면 우리의 소유도 땅 끝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모아놓고 있다. 오늘 본문 4절에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세상 신이 귀신이다. 귀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은 그토록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예전에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랬다. 복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수 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어린양의 피로 애굽은 망했다. 피를 언약으로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 주위에 있는 애굽을 다시 한번 박살 낼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잡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구별된 개인 기도시간을 만들기 바란다. 그때 다시 한번 주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답은 약속의 피 그리스도이다.